

패션산업에서 해외직접투자 - 무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손미영 · 이은영* · 김하나*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Trends and Effe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Fashion Industry

Mi Young Son · Eun Young Rhee* · Ha Na Kim*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4. 5. 25. 접수)

Abstract

With the advent of the globalization trend of the industry, the enterprises in the fashion industry around the world have witnessed a surge in exports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Many fashion enterprises in each country, along with the multi-national enterprises, have engaged in global outsourcing of the production process in order to increase their global competitiveness, and have attempted to expand their commercial presence in the world market by entering into other foreign markets. Such market entry attempts have led to the increase of FDI and trade by the fashion enterprises.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interactive relation between FDI and export/import of fashion products in different fashion industries both worldwide and in Korea. First, we will look into the relation between export/imports and FDI of each regional fashion industry, then expand the study to the relation between those two factors found in the fashion industry of Korea in general, and finally, to the relation between the two factors in the fashion industry of countries that are the major export nations of fashion goods into Korea. The data which this study is based on were collected from the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Yearbook Vol. II (UN, 1991-2002, New York: UN), UNCTAD Handbook of Statistics (UN, 1996-2001, Vienna: UN), UNCTAD database, the archives of the Korea Federation of Textile Industry and the archives of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The methods of analysis used in this study were correlation, regression, and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data.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ed that each fashion industry of different regions was subject to a diversity of effects. For one, the fashion industry in Korea showed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outbound investment and both export and import. On the other hand, the apparel industry in Korea showed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outbound investment and imports, but no such correlation between outbound investment and exports.

Key words: Fashion industry, Foreign direct investment, Trade, Export/import; 패션산업, 해외직접투자, 무역, 수출/수입

I. 서 론

21세기 우리의 산업환경은 과학과 IT기술의 발달로 세계 각 국가간의 지리적 거리감이 좁혀지고 있으며 무역과 투자환경의 자유화로 인해, 세계 각 국의 상호 의존도는 물론 세계경제의 통합도 점차 커지고 있다. 점차 세계화되고 있는 산업환경으로 전세계 패션산업과 패션기업들은 국내외적으로 전례 없던 글로벌 경쟁에 직면하게 되었고 따라서 각 국의 패션산업과 패션기업들은 더욱 국제화를 지향하면서 수출과 해외직접투자를 전 세계적으로 증가시켰다. 즉 다국적 기업을 비롯한 각 국의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기지를 전세계로 이전하고 있으며 더욱이 해외시장의 확대를 위해 세계시장에의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해외진출을 위해 기업들은 해외직접투자와 무역을 증가시키고 있다(손미영, 2003).

패션산업에서 한국은 예전에 갖추고 있었던 가격 경쟁력에서 후발개도국에 밀리기 시작하면서 생산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기 시작하여 1983년부터 패션산업에서의 해외직접투자의 유출이 해외직접투자 유입을 상회하기 시작하였고(김경, 1994) 이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의 영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이 산업에서 주요한 발전수단이 되었던 수출지향적 국가들에서는 해외직접투자가 국민경제 즉 생산과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해외직접투자가 국내산업생산에 긍정적인 효과 즉 수출 유발효과를 가져오는지 또는 국내산업생산에 부정적 효과 즉 수출대체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김경, 1994; 박해선 1998; Amiti & Wakelin, 2003; Head & Ries,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션산업에서 해외직접투자 추세와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패션산업과 기업에서는 국제화를 지향하고 있으나 연구분야에서는 패션산업과 기업의 세계화 특히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연구가 아직 미비하다. 해외직접투자의 추세와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한국패션산업과 기업의 국제화의 구체적인 방향 설정에 지침이 될 수 있으며 학문적으로는 한국패션산업과 기업의 국제화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이론을 정립함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이 하

고자 한다. 첫째, 전세계 패션산업에서 해외직접투자의 추세를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전세계 패션산업에서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입과의 관계를 연구하고자 한다. 셋째, 한국패션산업에서 해외직접투자의 추세를 알아보고자 한다. 넷째, 한국패션산업에서 해외직접투자와 수출과의 관계를 연구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해외직접투자의 정의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는 수출의 상대적 개념으로 정의되는데 즉 수출이 자국내 생산요소를 결합하여 제품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인데 반해 해외직접투자는 자국내의 생산요소인 자본, 생산기술, 경영기술 등을 해외로 이전하여 현지국의 생산요소인 노동, 토지 등과 결합하여 제품을 생산과 판매를 하는 것으로 정의 한다(조동성, 1998). 또한 해외직접투자는 간접투자와의 상대적 개념에 의해 정의되는데, 기존 정의들은 공통적으로 해외기업(foreign enterprise)에 대한 통제권의 존재를 직접투자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 중 대표적인 정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김신, 2003).

① Ragazzi: 한 국가의 거주자가 실질적 통제권(effective control)을 갖는 해외기업에 대한 투자분

② Root(1978): 경영에 대한 통제권(managerial control)을 갖는 해외기업에 대한 장기지분투자(long-term equity investment)

③ Kozima(1978): 해외기업의 경영과 이익에 대한 통제권(control over management and profit)을 주목적으로 하는 자본 이동

이상과 같은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정의를 종합해 보면, '해외직접투자는 피투자기업의 경영에 직접 참가함을 목적으로 자본, 경영능력, 기술, 상표 등의 생산요소를 복합적으로 해외에 이전시키는 기업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2. 해외직접투자의 유형

해외직접투자 유형 분류는 소유지분이나 투자방법, 활동범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첫째, 외국투자가 소유하는 지분(equity)의 정도에 따라 직접투자를 구분하는 경우, 크게 외국투자가 100% 지분

을 갖는 단독투자와 현지투자자와의 합작투자자로 구분된다.

둘째, 투자방법에 따라서도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i) 기존 현지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기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거나 그 기업을 매입하는 방법 ii) 100% 지분을 갖는 해외자회사를 신설하거나 새로운 합작투자에 참여하는 방법 iii) 영업활동을 위한 실물자산의 취득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김신, 2003).

셋째, 활동범주에 따라 수평적 해외직접투자와 수직적 해외직접투자로 구분한다. 수평적 해외투자는 시장 간에 하부활동(완성품의 생산)을 복사하는 것으로 복사된 해외 활동에 따라 다시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i) 복사(replication): 조립, 원부자재 생산, 생산 디자인 등 모든 활동을 복사하는 투자이다. 해외자회사의 생산은 현지 요소들로 이루어진다. ii) 지사(branching): 완성품 생산만을 복사하는 투자이다. 원부자재 생산, 생산 디자인과 같은 상부활동은 본국에서 구체화된다. 본부는 해외회사 공장들에 이들을 수출한다. 대체로 본국에서 구체화되는 활동들은 고기술집약적일 것이다. 수직적 해외투자는 국가의 비교우위에 근거하여 활동들을 해외에 재배치한다. 기술집약적 활동들은 기술-충족 국가들에 위치시킨다. 최종 생산을 포함하는 각 활동이 각각의 나라에서 행해진다(Head & Ries, 2002).

3. 해외직접투자의 추세

해외직접투자는 1970년대 이래 전세계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1980년대, 1990년대에 해외직접투자는 급속히 팽창하고 있으며 전세계 경제에서 국제적 생산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있다. 전세계 해외직접투자는 2000년에만 18% 증가하였으며 세계적 생산, 자본, 무역과 같은 다른 요소들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무려 1.3조 달러에 달하고 있다(UNTAD, 2000).

Sethi et al.(2003)는 해외직접투자의 흐름과 결정요소에서 새로운 변화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미국 다국적기업(MNEs)에 대한 통계분석으로부터 해외직접투자의 지역적 분배에서 그리고 전통적 결정요소에서 변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전통적인 해외직접투자의 결정요소는 부유한 시장, 개방된 정부정책, 기술적 인프라, 숙련된 노동력, 문화적 근접성 이었는데 비용감소의 압력으로 입지우위(location-specific advantage) 요소가 중요해졌다. 즉 저임금과 신흥시장으로의 안

정된 진입을 이유로 아시아로 투자가 증가하고 있었다. 따라서 해외직접투자의 흐름이 유럽에서 일본과 신흥시장으로 이동하였고 다시 ASEAN 국가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해외직접투자의 결정요소가 하이마켓추구(high market seeking)에서 효율성추구(efficiency-seeking investments)로 이동하였음을 나타냈다.

그러나 해외직접투자의 총 흐름 중 해외직접투자 유출은 선진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해외직접투자 금액 중에서 70%는 여전히 다시 선진국으로 투자되고 30%만이 개도국으로 투자되고 있다(김승권, 2003).

4. 해외직접투자의 영향

해외직접투자는 전세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에서 그 중요성이 간과될 수 없다(UNTAD, 2001). 즉 전세계 경제에서 국제적 생산의 역할을 증대시켰으며 자본 뿐 만 아니라 기술, 경영 노하우, 마케팅 노하우를 피투자국에 이전시키면서 전세계 경제적 성장에 공헌하였다고 할 수 있다(Maniam & Leavell, 2003).

Maniam & Leavell(2003)은 무역과 생산(output), 해외직접투자 유입(inward FDI) 간에 관련성을 경험적 증거로서 이끌어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경제적 성장과 개방성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1960-2001년간 5개국 자료로부터 해외직접투자와 수출 및 경제적 성장 간에 양방향적(bi-directional) 인과관계가 있음을 3개 국가에서 발견하였고, 나머지 각각의 국가에서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성장, 해외직접투자와 경제성장에서 인과관계가 있었음을 발견하였다.

Head & Ries(2002)는 일본 다국적기업들에서 해외생산의 급격한 증가가 일본제조산업에서 기술집약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다국적기업의 수직적분업이 기술등급을 상향시키는데 공헌하였음을 경험적 연구로서 밝혔다. 즉 이는 수직적분업(vertical specialization)에서와 일치하는 결과로, 저임금국가에서 해외직접투자는 자국의 기술집약도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투자가 고임금 국가로 이동하면서 이 효과는 떨어진다. 즉 해외직접투자가 고임금 국가로 이동하면 피투자국(host country)의 임금수준이 충분히 높으므로 기술등급의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저기술 활동은 저임금 국가들에 전이되며 고기술 활동은 고임금국가들

에 전이된다는 것과 일치한다.

Amiti & Wakelin(2003)는 36개 국가를 대상으로 투자자유화가 무역흐름에 미친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해외직접투자 유형에 따라 수출이 증가/감소된다고 하였다. 국가간 기술적 수준과 무역 투자비용은 해외직접투자 유형 즉 수평적 해외직접투자인지 수직적 해외직접투자인지를 결정하며 이러한 해외직접투자 유형은 무역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투자 자유화는 국가 간에 기술적 수준이 다르고 무역비용이 적게 들 때 수출을 자극하고 결과적으로 증가하게 만든다. 수직적 해외직접투자는 지리적으로 생산단계가 분사된 그리고 기업 내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다국적 기업에서 우세하다. 반면 투자 자유화는 상대적 기술 수준이 유사하고 무역비용이 높을 때 수출을 감소시킨다. 즉 수평적 해외직접투자는 해외시장에서 수출을 해외에서의 생산으로 대체한다. 1994년 투자자유화는 표본 중 70% 국가에서 수출을 증가시켰고 나머지 30% 국가에서 수출을 감소시켰다.

한국의 해외직접투자가 국내산업생산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즉 해외직접투자에 의한 현지생산이 본국으로부터의 수출을 대체하게 되는 경우 해외직접투자는 수출감소 효과를 갖게 되며 해외직접투자가 수출과 보완적인 관계를 성립할 경우 수출증대 효과를 갖게 된다. 양자간의 보완적 관계는 현지생산에서 본국의 모기업의 원자재 및 부품 등 생산투입요소에 대한 수요가 증대할 때 가장 크게 나타나며, 또한 현지마케팅이나 서비스 등 영업활동이 강화되는 경우와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제고되어 수요가 증대할 경우에도 이루어진다(박해선, 1998). 특히 개도국 투자에서 수출유발효과가 뚜렷한 것은 현지산업의 미발달로 현지생산에서 소요되는 자본재, 중간재 및 부품 등의 본국 조달비중이 높은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선진국 투자는 주로 현지시장 판매, 무역장벽회피 등을 위한 것이어서 현지생산이 국내수출을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직접투자로 인해 국내 생산기반이 해외로 이전됨에 따라 국내 생산 및 고용이 감소된다는 산업공동화의 우려는 논란의 여지가 많음을 나타낸다. 박해선(1998)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가 국내의

산업공동화를 야기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공통적인 견해라고 하였다. 더욱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와 국내설비 투자의 비교시 해외직접투자 비율이 낮아 해외투자가 국내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하며, 우리나라의 해외투자는 국제경쟁력이 떨어진 산업에서 해외생산을 통해 부품, 중간재 등의 수출을 촉진시키며 또한 퇴출된 산업을 새로운 비교우위의 산업이 대체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더욱이 Amiti & Wakelin(2003)의 연구에서처럼 해외직접투자 유형에 따라 수출을 자극하기도 하므로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생산이나 무역에 긍정적일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다.

5. 한국패션산업에서의 해외직접투자

한국패션산업에서 해외직접투자 현황을 해외직접투자 건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1980년도부터 IMF 구제금융시기를 제외하곤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아시아에 매우 집중되어있고 미주, 유럽에서 미약하지만 증가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손미영, 2001).

한국패션산업에서 해외직접투자의 유입과 유출을 살펴보면, 김경(1994)은 한국패션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가장 먼저 즉 1983년 이후부터 해외직접투자의 유출이 유입을 상회하기 시작하였고 그 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였다. 더욱이 수출/수입 비율과 해외직접투자의 유출/유입의 비율을 비교해보면 패션제조업의 경우 해외직접투자 유출/유입 비율의 증가 또는 감소하는 시점이 수출/수입 비율이 감소 또는 증가하는 시기와 거의 일치하고 있으며 두 비율이 서로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한국패션산업에서 입지적 우위의 약화가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촉진시키는 반면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대체로 개발도상국의 경우 노동집약적이고 저급기술의 산업에서 국내기업의 소유의 우위가 먼저 축적되기 시작하고 반대로 입지적 우위는 이러한 산업에서 먼저 약화되기 시작한다. 따라서 노동집약적이고 저급기술의 산업에서 가장 먼저 해외직접투자의 순수출이 흑자를 나타내게 된다.

한국패션산업의 해외직접투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방호열(1992)은 한국패션산업에서 대부분의 해외직접투자는 시장환경의 불리성 또는 외부환경변화를

기업내부적으로 흡수하여 완화시킬 수 없는 중소기업이 규범적 차원에서 선택하는 전략대안이었으며 한국패션산업에서 해외직접투자를 통해서라도 환경에 대응하려고 노력하는 기업은 국내지향적 중소기업보다는 그동안 수출을 통해 해외시장에 대한 경험을 쌓아 온 중소기업이라는 것이라고 하였다. 오성배(1990)도 한국 패션산업에서의 해외직접투자는 기존 해외직접투자이론들로서 설명할 수 없음을 언급하고 있다. 즉 기존 이론들은 해외직접투자의 필요 조건으로서 기업 특유의 독점적 우위요소를 언급하고 있으며 또는 손익개념의 관점에서 수출, 라이선싱, 해외직접투자를 선택하는 의사결정을 기초로 설명하고 있는데, 한국패션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기존 수출을 유지하기 위한 방어적 차원에서 해외직접투자를 행하였다고 하였다. 즉 수출연장 차원에서 등장한 최적입지 추구형 해외직접투자라고 언급하면서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i) 동남아, 카리브해안 연안국으로의 지역적 편중이 심함 ii) 중소기업 주도의 소규모 투자 형태 iii) 의류부문에 편중되어 있음 iv) 단독투자 위주의 진출 v) 미성숙한 유형의 투자 형태 vi) 독점적 우위가 부재함.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패션산업에서 해외직접투자 추세와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세계패션산업에서 해외직접투자 추세 및 영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 연구문제 1-1. 세계패션산업에서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추세를 밝히고자 한다.
- 연구문제 1-2. 세계패션산업에서 지역별 해외직접투자와 무역과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 연구문제 2. 한국패션산업에서 해외직접투자 추세 및 영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 연구문제 2-1. 한국패션산업에서 해외직접투자와 무역과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 연구문제 2-2. 한국패션산업의 주요 수출국가에서 해외직접투자와 무역과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2. 용어의 정의

1) 선진국과 개도국

연구문제 1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해외직접투자를 비교하고 있는데, 선진국과 개도국의 분류는 UN 분류(International Yearbook of Industrial Statistics 2002; UNIDO, 2002; Vienna:UNIDO, p12-16)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이용된 선진국과 개도국 통계자료들이 모두 UN산하 기구들의 자료들이므로 동일할 것으로 추정됨.

2) 패션산업과 의류산업

본 연구의 연구문제 1에서 전세계 패션산업의 무역과 해외직접투자 자료는 UNCTAD통계자료를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패션산업은 표준국제무역분류(SITC)의 무역제품분류번호 26, 65, 84에 해당되는 산업을 지칭하며 섬유, 원사 및 직물, 의류 및 의류엑세서리 등을 포괄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 2에서 한국패션산업과 한국의 의류산업을 구분하여 연구하였는데,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한국수출입은행의 산업분류 구분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작의적으로 분류하여 사용하였다. 패션산업은 섬유, 사 및 직물, 의류제품류를 포괄하며 의류산업은 의류제품류를 지칭한다.

3. 자료수집방법

세계무역 자료수집을 위해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Yearbook Vol. II(UN, 1991-2002, New York: UN) 및 UNCTAD Handbook of Statistics(UN, 1996-2001, Vienna : UN), 세계해외직접투자 자료수집을 위해 UNCTAD database(FDI statistics team, Division n Investment Technology and Enterprises Development, UNCTAD), 한국수출입 자료수집을 위해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산업통계 자료(<http://www.kofoti.or.kr>), 한국해외직접투자 자료수집을 위해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정보(<http://www.koreaexim.go.kr>)의 통계자료들이 이용하였다.

4. 자료분석방법

패션산업에서 해외직접투자 추세와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세계 및 국내 수출입, 해외직접투자 자료들

을 상관관계, 회귀분석,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분석

1. 세계패션산업에서 해외직접투자자 무역

연구문제 1인 세계패션산업에서 해외직접투자자의 추세, 그리고 해외직접투자자가 수출입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전세계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추세

<표 1>은 패션산업에서 1980~2000년까지 전세계 지역별 해외직접투자자의 유출과 유입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패션산업에서 전세계 해외직접투자 유출은 1980~2000년까지 지속적으로 선진국이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구유럽이 주도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 유입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특히 중남미에

서 서구유럽으로 이동되었다. 1980년대 패션산업에서 해외직접투자 유입은 중남미가 46.48%, 남동아시아가 14.41%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1990년대는 서구유럽이 70~80%를 상회하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저임금수준과 신흥시장으로의 안정된 진입 때문에 아시아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타산업에서 나타난 결과(Sethi et al., 2003)와는 차이가 있으며 그리고 해외직접투자 중에서 70%는 다시 선진국으로 투자되고 30%만이 개도국으로 투자되고 있다는 김승권(2003)의 연구결과보다 패션산업은 더 선진국에 집중되었음을 나타낸다.

2) 해외직접투자자의 수출입에 대한 영향

<표 2>는 선진국과 개도국 패션산업에서 해외직접투자자와 수출입의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내는데, 선진국 수출과 수입에 영향을 준 해외직접투자 변수는 해외직접투자 유입잔액이었으나, 수출시장점유율에는 해외직접투자 유입잔액이 부적 영향을 주고 있음이

<표 1> 전세계 패션산업에서 1980-2000년간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추세

지역 년도	해외직접 투자	세계	선진국	개도국	서구 유럽	미국	중남미	남동아시아	동 유럽
1980	FDI유출	100	99.15	0.85	99.15		0.83	0.03	
	FDI유입	100	39.11	60.89	15.42	23.69	46.48	14.41	
1990	FDI유출	100	99.92	0.08	86.45	13.48	0.00	0.07	
	FDI유입	100	91.75	8.25	81.96	9.79	5.11	3.15	
1995	FDI유출	100	99.72	0.28	89.01	10.71	0.00	0.20	
	FDI유입	100	80.69	19.31	66.86	13.83	4.64	14.55	
1998	FDI유출	100	99.44	0.56	82.24	17.20	0.00	0.40	0.00
	FDI유입	100	86.83	11.64	71.73	15.10	6.67	4.86	1.53
1999	FDI유출	100	99.81	0.18	85.59	14.22	0.01	0.15	0.01
	FDI유입	100	91.20	7.02	84.09	7.10	1.53	5.48	1.78

<표 2> 선진국과 개도국 패션산업에서 해외직접투자자와 수출입의 회귀분석

	세계	선진국			개도국		
	무역	수출시장점유율	수출	수입	수출시장점유율	수출	수입
FDI 유입잔액	4.50**	-2.95*	3.41**	3.18**	-0.39	0.37	0.3
FDI 유출잔액	-0.82	-0.98	-1.65	-0.68	2.00	2.39*	3.42**
FDI 유입	0.1	-1.50	-1.2	-0.11	2.27*	2.80*	2.45*
FDI 유출	1.33	-0.8	1.86	1.27	0.25	-0.57	-0.27
Adjusted R ²	0.88	0.88	0.59	0.74	0.49	0.68	0.77
F-value	18.69**	26.50**	5.96**	10.8**	4.38*	8.26**	12.66**

p<.05, *p<.01

나타났다. 개도국 수출과 수입에 영향을 주고 있는 해외직접투자 변수는 해외직접투자 유출잔액과 해외직접투자 유입잔액이었다. 특히 해외직접투자 유입잔액은 개도국의 전세계수출시장점유율, 수출, 수입과 모두 관련이 있음이 나타났다.

<표 3>은 전세계 패션산업에서 지역별 해외직접투자자와 수출입의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내는데, EU의 수출시장점유율과 수출에는 해외직접투자 유입잔액이, 수입에는 해외직접투자 유출잔액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미국의 수출시장점유율과 수출에는 해외직접투자 유입잔액과 유출잔액이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남미의 수출시장점유율에는 해외직접투자 유출잔액과 유입잔액이, 수출과 수입에는 해외직접투자 유출잔액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남동아시아

의 수출, 수입에 유출잔액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이나 EU 패션산업에서 해외직접투자 유입잔액이 모두 전세계수출시장점유율과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남동아시아의 경우 해외직접투자자는 전세계수출시장점유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 한국패션산업에서 해외직접투자자와 무역

1) 한국패션산업에서 해외직접투자자와 수출입 관련성

<표 4>는 한국패션산업에서 해외직접투자 유출과 수출/입의 상관관계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패션산업에서 해외직접투자의 유출은 수출과 수입 모두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의류산업에서는 해외직접투자 유출이 수입과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

<표 3> 전세계 패션산업에서 지역별 해외직접투자자와 수출입의 회귀분석

	EU			미국		
	수출시장점유율	수출	수입	수출시장점유율	수출	수입
FDI 유입잔액	2.82*	3.44**	3.51	2.70*	3.19**	0.15
FDI 유출잔액	-0.77	-1.98	-1.69**	3.05*	5.23**	9.63**
FDI 유입	-0.38	-1.74	-1.30	-0.99	-0.89	0.035
FDI 유출	1.32	1.89	1.69	-1.08	-1.07	-1.31
Adjusted R ²	0.67	0.52	0.62	0.78	0.9	0.95
F-value	7.7**	4.76**	6.64**	13.55**	32.16**	63.93**
	중남미			남, 동 아시아		
	수출시장점유율	수출	수입	수출시장점유율	수출	수입
FDI 유입잔액	0.99	1.33	0.58	0.38	1.39	1.78
FDI 유출잔액	7.8**	5.34**	3.5**	1.73	4.24**	5.47**
FDI 유입	2.37*	1.89	1.55	0.78	1.85	1.01
FDI 유출	-1.056	-0.65	0.9	-0.16	-2.22	-1.87
Adjusted R ²	0.92	0.84	0.74	0.29	0.82	0.87
F-value	36.68**	18.28**	10.19	2.33	15.57**	22.41**

p<.05, *p<.01

<표 4> 한국패션산업에서 해외직접투자자와 수출의 상관관계

		패션산업 해외직접투자유출 (누계)		패션산업 해외직접투자유출 (누계)		의류산업 해외직접투자유출 (누계)		의류산업 해외직접투자유출 (누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패션 산업	수출	0.961***	0.969***	0.825***	0.751***				
	수입	0.917***	0.928***	0.864***	0.798***				
의류 산업	수출					-0.119	-0.096	-0.244	-0.229
	수입					0.849***	0.91***	0.943***	0.939***

***p<.005

으나 수출에서는 부적인 관계를 나타냈기는 했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이 가능하다. 우선 한국의류산업에서 해외직접투자는 저렴한 노동비용을 위해 생산을 해외에 이전하면서 해외생산이 국내 및 해외시장의 수요를 충당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내로의 역수입이 증가하고 있고 국내 수출을 대체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패션산업에서 해외직접투자가 수출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박해선(1998)이 지적하였듯이 개도국에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졌을 경우 피투자국에서 원부자재 및 부품, 생산 설비 등 생산투입요소의 수요가 증가하므로 수출유발 효과를 가져온다. 즉 국내 패션산업에서 해외직접투자는 주로 아시아 후발개도국으로 투자되고 있으므로 섬유 및 직물, 의류제품, 기타 패션제품을 포함한 전반적인 패션산업에서 수출의 증가를 가져온다.

2) 한국패션산업의 주요 수출국에서 해외직접투자와 무역

<표 5>는 한국패션산업의 주요 수출국가에서 해외직접투자 유출과 수출입의 상관관계 결과이다. 결과가 국가에 따라 매우 다양한데, 선진국에서는 대체로 한국패션산업의 해외직접투자 유출이 수입과 관련되며 개도국에서 해외직접투자 유출은 수출과 부적 관련성이, 그리고 수입과는 정적 관련성을 나타낸다. 즉 한국패션산업에서 해외직접투자 유출이 중국과 방글라데시를 제외한 프랑스, 인도네시아, 태국으로의 수출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을 나타냈으며, 한국패션산업

의 해외직접투자 유출이 미국을 제외한 이태리, 중국,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을 나타냈다. 한국패션산업의 해외직접투자 유출은 중국과는 수출 및 수입 모두에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방글라데시와는 수출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미국으로부터 수입과 부적 상관관을 나타냈다.

이 결과는 대체로 해외직접투자의 유출이 개별 국가의 무역 관계에 따라 다양한 관련성이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해외직접투자 전략이 국가 유형에 따라 해외직접투자 유형과 그 결과가 고려되어야 함을 함축한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전세계 패션산업에서 해외직접투자의 추세와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입과의 관계 그리고 한국패션산업에서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입과의 관계를 연구하였고,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전세계 해외직접투자 유출은 지속적으로 선진국 특히 서구유럽이 주도하고 있으며 해외직접투자 유입은 1990년대로 진행되면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특히 중남미에서 서구유럽으로 이동되었음이 나타났다.

둘째, 선진국패션산업에서 수출시장점유율과 수출에 영향을 미쳤던 해외직접투자 변수는 해외직접투자 유입잔액이었으며 부분적으로 수입에 해외직접투자 유출잔액이 영향을 미쳤다. 개도국의 수출 및

<표 5> 한국의 주요 수출국에서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입 상관관계

국가	일본		미국		영국		이태리		프랑스		호주	
해외 직접투자 유출	건 수	금액	건 수	금액	건 수	금액	건 수	금액	건 수	금액	건 수	금액
수출	-0.37	-0.03	-0.45	-0.17	0.05	0.22	-0.46	-0.45	-.56*	-.66**	0.45	0.22
수입	-0.31	0.18	-.57*	-0.02	-0.18	0.18	.57*	.60*	0.32	0.41	-0.25	-0.31
국가	홍콩		중국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			
해외 직접투자 유출	건 수	금액	건 수	금액	건 수	금액	건 수	금액	건 수	금액		
수출	0.343	0.031	.721**	.558*	.603*	0.231	0.071	0.021	-.585*	-0.281		
수입	-0.05	-0.112	.883**	.808**	0.007	0.439	-0.134	-0.08	-0.443	-0.386		
국가	베트남		브라질		태국		파키스탄					
해외 직접투자 유출	건 수	금액	건 수	금액	건 수	금액	건 수	금액				
수출	0.567	0.574	-0.011	-0.16	-.506*	-0.445	0.221	0.305				
수입	.601*	0.537	0.171	0.143	-0.484	-0.462	0.181	-0.264				

**p<.05, **p<.01

수입에는 해외직접투자 유출잔액과 유입액이 영향을 주었다.

셋째, 한국패션산업에서 해외직접투자의 유출은 수출과 수입 모두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의류산업에서는 해외직접투자 유출이 수입과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으나 수출과는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넷째, 한국패션산업의 주요 수출국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중국과 방글라데시를 제외한 프랑스,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으로의 해외직접투자 유출과 수출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미국을 제외한 이태리, 중국, 베트남으로의 해외직접투자 유출과 이들 국가로부터의 수입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한국패션산업에서 해외직접투자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선, 한국패션산업에서 해외직접투자가 수출 연장선상에서 독점적 우위와 내부화 요소 없이 수입규제장벽을 효율적으로 회피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적의 입지를 추구하려는 입장에서 진행되었으므로, 이미 확보된 소유의 우위에 독점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2005년 쿼타가 해제되면 무역장벽의 해소와 함께 모든 패션제품 시장이 개방되고 선진패션산업국의 글로벌 패션 경쟁자 그리고 후발개도국의 가격경쟁력 있는 경쟁자에 의해 입지가 좁혀지므로 한국패션기업들은 단순 수출시장 연장선이 아닌 기업 특유의 차별적 그리고 기술적 우위 확보에 힘을 써야 한다.

둘째, 미국과 EU국가들의 경우에서처럼 해외직접투자 유입잔액이 세계패션제품수출시장점유율과 수출에 모두 영향을 주므로 우리 패션산업에서도 해외직접투자의 유치에 힘을 써야 한다. 특히 한국패션기업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해외직접투자 유치에 노력해야 한다.

셋째, 한국패션기업들은 해외직접투자 시 보다 전략적이어야 한다. 해외직접투자 전략 기획 시 해외직접투자 목표와 함께, 해외직접투자 유형과 해외직접투자 국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해외직접투자 유형의 선택 시 아시아 역내 분업체계를 활용하기 위해서 수직적 해외직접투자 유형을 이용하여야 한다. 즉 저기술 활동을 아시아 후발개도국에 위치시키고 부가가치를 창출시킬 수 활동을 핵심 역량으로 국내에 위치시킴으로서 Head & Ries(2002)가 언급하였던 바처럼

국내 패션산업의 기술적 집약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박해선(1998)이 언급하였던 것처럼 아시아 개도국에 해외직접투자함으로써 수출유발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즉 현지 산업의 미 발달로 해외생산에서 소요되는 자본재 뿐만 아니라 원부자재, 부품, 생산설비 등 생산투입요소를 국내에서 조달하여야 할 것이며 그리고 현지마케팅이나 서비스 등 영업활동의 강화 시 국내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증가할 것이므로 현지 국가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넷째, 종래의 한국패션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오성배(1990)가 지적하였듯이 수출시장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선진국 시장으로의 수출을 위해 중남미나 아시아 개도국으로 봉제활동을 비롯한 생산 위한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졌다. 이는 한국패션기업의 국제화가 현상적으로는 현지활동을 통한 해외직접투자 단계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주지만 아직도 수출시장지향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음을 나타낸다.

한국패션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한국패션기업의 국제화가 수출시장지향단계에서 벗어나 현지시장을 확장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진시장으로의 수출을 위한 생산이나 수출마케팅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현지마케팅이나 서비스 등 영업활동의 강화를 비롯하여 제품의 현지화(현지 적응) 및 개발, 제품라인의 확장, 유통 및 광고 비용의 공유를 포함한 현지화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참고문헌

- 김경. (1994).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순유출의 변화에 관한 연구: 동태적 접근방법으로서의 해외직접투자 분석. *국제경영연구*, 5, 37-61.
- 김신. (2003). *국제경영학*. 서울: 박영사
- 김승권. (2003. 10). 세계 해외직접투자(FDI) 동향과 시사점. *수은해외경제*. 자료검색일 2004, 2. 16, 자료출처 <http://www.koreaexim.go.kr>
- 김완순 외 26인. (2000). *세계경제와 국제통상*. 서울: 무역경영사.
- 김원택, 유인석, 이훈, 황인성. (1997.1). -해외투자 백만불시대- 해외투자 요인, 영향 및 정책분석. 삼성경제연구소.
- 김중식. (1993). 한국 섬유 및 의류업체의 수출성공요인 연구. *한국경영연구*, 203-228.
- 권영철. (1999). 해외직접투자의 결정요인과 내부화 수준: 수출지향적 대 시장지향적 투자 비교. *국제경영학회*, 9(2), 138-159.

- 방호열. (1992).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전략적 접근법의 필요성. *국제경영학회*, 49-76. 자료출처 <http://kiss.kstudy.com>
- 박해선. (1998, 8). 외환이후 해외직접투자 동향 및 경영현황 분석 -수은 금융지부 해외현지법인앞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수출입은행*. 자료검색일 2004, 2. 16, 자료출처 <http://www.koreaexim.go.kr>.
- 손미영. (2001). 한국 섬유 및 의류 산업의 세계화 연구. *한국 의류학회지*, 25(6), 1131-1142.
- 손미영. (2003). *패션산업의 세계화 추세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요소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어윤대, 백낙기. (1999). 한국 제조부문 해외투자기업의 국제소싱 형태 및 결정요인 분석. *국제경영학회*, 10(1), 1-35.
- 오성배. (1990). *한국섬유산업 해외투자의 행태와 이론 -산업내부구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협동과정 산업교육전공 석사학위 논문.
- 조동성. (1998). *21세기를 위한 국제경영*. 서울: 경문사.
- 지혜경. (2002). *한국 의류무역의 변화추이 및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2003, 10. 10). *대중중 투자기업에 대한 경영실태조사 -수출입 및 고용현황을 중심으로-*.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동북아팀).
- Amiti, M. & Wakelin, K. (2003).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international trad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61, 101-126.
- Head, K. & Ries, John. (2002). Offshore production and skill upgrading by japanese manufacturing firm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58, 85-105.
- Hejazi, W. & Pauly, P. (2003). Motivation for fdi and domestic capital form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34, 282-289.
- Maniam, B. & Leavell, W. (2003, Spring). Perspective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new millenium. *Journal of Business Strategies*, 20(1), 1-5.
- Pan, Y. (2003). The flow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to china: the impact of country -specific factor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56, 829-833.
- Rob, R. & Vettas, N. (2003).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exports with growing demand. *The Review of Economics Studies*, 70, 629-648.
- Sethi, Guisinger, Phelan & Berg. (2003). Trends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flows: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34, 315-326.